

##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 (Ⅰ)

-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체질별 응답차이에 따른 문항분석 -

김태연\* · 유정희\* · 이의주\*\* · 고병희\*\*\* · 송일병\*

### Abstract

## The Study on the Upgrade of QSCC Ⅱ (Ⅰ)

- A Study on Comparison of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based on Sasang constitution's differences-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Ⅱ(QSCCⅡ) -

Kim Tae-yun\* · Yoo Jung-hee\* · Lee Eui-ju\*\* · Koh Byung-hee\*\*\* · Song Il-byung\*

\*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Koer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Purpose :

This study has focused o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and accuracy of the questionnaire which considered as a basic data to identify constitution

#### Methods :

By analysing the tendency of the respondents who has defined constitution by clinical diagnosis and comparing of their answers, the result of their constitution analysis by our questionnaire were re-examed. The answer of each question to each constitution were tested how it is relevant to a scale of a constitution.

So I analysed each item response rates on QSCCⅡ of those who had been tested and diagnosed as Taeyangin, Soyangin, Taeumin, Soeumin respectively.

#### Results :

1. From the 537 results of QSCCⅡ of those who were examined by professors, I made a selected Taeyang scale which is consists of 18 items, a selected Soyang scale which is consists of 40 items, a selected Taeum scale which is consists of 41 items and a selected Soeum scale which is consists of 32 items.

2. I have found that there is limitation to find out constitution by the questionnaire we used, one I hope that suitable questionnaire will be developed for the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 : Questionnaire, Sasang constitution, Tendency of the respondent,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경희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한국한의학 연구원

\* 이 연구는 2002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교신전자 : 김태연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전화) 02-958-9098

E-mail) Area92@freechal.com

## I. 緒 論

사상체질의학은 동무 李濟馬가 1894년 「東醫壽世保元」<sup>1)</sup>을 저술하여 체질 유형을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특성과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양생법을 밝힌 학문이다. 사상인의 감별은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 저술한 사상인의 體形氣像, 性質, 才幹, 生理的 體質證과 病理的 體質病證에 대한 기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른 체질진단은 습득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 및 사상의학이론에 대한 숙달된 지식이 필요하며 주관적인 경향을 띠기 쉽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체형을 계측하는 방법<sup>2,3)</sup>, 두면부를 계측하는 방법<sup>4,5)</sup>, 생화학적 방법<sup>6,7)</sup>, 유전자 분석방법<sup>8-10)</sup>, 진단기기를 이용한 방법<sup>11-14)</sup> 등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심리적, 정신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는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런 면을 보완하여 심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설문조사지를 이용한 체질의 진단연구가 있어왔다. 高<sup>15,16)</sup> 등의 설문지 방법이 나온 이후 金<sup>17)</sup>과 李<sup>18)</sup>가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를 구성하였고 이를 補完한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sup>19,20)</sup>를 개발하였으며 그 후 설문조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연구<sup>5,21-27)</sup>들이 있어왔다.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를 보완하여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가 만들어졌으나 문항의 수가 필요이상으로 많으며, 문항의 내용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이해부족등의 문제가 있어 설문조사지의 개선을 위해 四象體質分類檢査紙의 유의성 및 문항에 대한 연구<sup>28-31)</sup>가 있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太陽人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太陽人 및 조사 대상자수를 늘린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의 문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본 저자는 경희대학교 강남경희한방병원 체질의학센터에 내원하여 설문에 응한 537명의 설문지의 體質別 應答頻度를 분석하여 體質別 辨別力이 있는지를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方法

### 1. 研究計劃

본 연구는 비실험적 연구(non-experimental design)로 四象人 體質診斷의 객관화를 위한 설문조사 연구이다.

### 2.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I)의 概要

QSCC II는 金<sup>17)</sup>이 임상심리학과와 정신신경과에서 心理分析을 위해 효과적인 方法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설문조사방식을 응용하여 제작한 四象體質分類檢査(QSCC)를 통계적인 과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改定한 것이다. QSCC II의 문항을 나누어보면 身體的 要素(8문항)와 心性的 要素(80문항), 體質病證과 體質素證에 관한 문(24문항), 動機歪曲 9문항과 함께 총 1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研究對象

경희대학교 강남경희한방병원 체질의학센터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I) 說問에 同意하고 體質醫學科 전문의의 體質診斷을 통해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으로 진단<sup>2)</sup>된 5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체질처방으로 1달이상 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약물반응이 불량한자(完實無病에 相反되는 반응을 보인자)는 1차로 탈락하고, 체질가족력에서 의심이 가는 자는 2차로 탈락하였습니다.

#### 4. 資料分析 方法

四象體質分類檢査(QSCCII)에 문항에 대한 體質辨別力의 檢證을 위해 SPSS 8.0 for Windows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질문과 네 개 체질간의 연관성 여부는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P 값에 의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유의한 문항은 다중비교를 실시하여 체질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P <0.05)

### Ⅲ. 研究結果

#### 1. 研究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본 연구에 포함된 사례들의 성별, 신장, 체중 등의 분포는 아래 Table에 제시하였다.

##### (1) 研究對象者의 體質別 性別 分布

性別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남자는 270명이고 여자는 265명이며 太陽人 2.4%, 少陽人 27.7%, 太陰人 35.7%, 少陰人 34.2%이다. <Table 1> 성별에 따른 네 군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Table 1. Distribution of Sex Distinction

	Taeyangin	Soyangin	Tacumin	Socumin	Total
Male	8 <sup>b)</sup> (61.5%)	75(50.7%)	86(45.0%)	101(55.2%)	270(50.5%)
Female	5(38.5%)	73(49.3%)	105(55.0%)	82(44.8%)	265(49.5%)
Total	13(2.4%)	148(27.7%)	191(35.7%)	183(34.2)	535

$\chi^2 = 4.536$ ,  $df=3$ ,  $p=0.209$  by Chi-square test between variances among groups.

a) number of patients

##### (2) 研究對象者의 體質別 年齡, 身長 및 體重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 평균신장에 따른 네 군간의 통계적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太陰人群이 67.15±10.88kg으로 다른 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p <0.01)

Table 2. The Comparison of Age, Height, Weigh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aeyangin N <sup>b)</sup> =13	Soyangin N=148	Tacumin N=191	Socumin N=183	p-value <sup>a)</sup>
Age(years)	42.15±14.63 <sup>d)</sup>	40.18±14.73	37.51±14.41	38.43±16.32	0.346
Height(cm)	164.90±9.31	163.82±8.43	164.63±7.96	164.52±12.32	0.877
Weight(kg)	57.53±7.76(A <sup>c)</sup> )	58.76±9.05(A)	67.15±10.88(B)	56.44±13.01(A)	<0.01

a)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s among groups.

b)number of patients, c) Mean±S.D  
d)The same letters(A, B)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 2. 體質別 應答差異에 따른 問項分析

체질별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타체질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을 재분석하여 각 체질간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유의성이 있는 문항중 체질간의 연관성을 부등호로 표시하였다. 반응 빈도와 기존의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와 같이 표기하면 뒤에 첨부한 부록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던 문항은 57문항이었다. 이 문항 중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 체질별 체질판단에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太陽人 18문항, 少陽人 40문항, 太陰人 41문항, 少陰人 32문항이었다.

##### (1)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問項 分類

기존 QSCCII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문항은 64문항이다. 이중 身體的要素를 묻는 8문항중에서 1문항, 性質才幹을 묻는 41문항중 20문항 恒心을 묻는 15문항중 5문항, 心慾을 묻는 24문항중 16문항, 病症을 묻는 24문항중 19문항, 動機歪曲 9문항중 3문항이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문항 1번에서 15번 문항중에서는 體形을 묘사한 4번 문항, 체질별 피부상태를 묻는 11번, 『格致藁 獨行編의 원문을 표현한 心慾을 묻는 13번 문항에 있어 체질별로 고르게

응답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나머지 문항 중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문항을 크게 네 분류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 네 체질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체질간에 차이를 보인 문항**

네 체질과의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각 체질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체질간의 차이를 보인 문항은 19문항으로 기존의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와 같이 표기하였다.

Table 3. Applicable Contents of statistical valueless Contents

No.	내 용	응답율	P값	비 교
21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태음)	55.5%	0.088	태음> 소음
22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소음)	54.4%	0.090	소음> 소양
26	개인적인 일보다 사회적인 일에 열심이다(소양, 태음)	28.2%	0.065	소양> 소음
29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소음)	68.0%	0.073	소음> 소양
32	나는 무슨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	56.4%	0.072	소음> 소양
44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태음)	44.7%	0.069	태음> 소양
45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태음)	58.8%	0.142	태음> 소양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소음, 소양)	46.2%	0.077	소양> 소음
66	별 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소양, 소음)	54.6%	0.092	태양> 태음
71	평소 자식을 드러내지 않지만 은근히 자식을 내세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61.3%	0.220	소음> 소양
77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47.1%	0.149	소음> 태양
79	매사에 능수 능란한 편이다	21.5%	0.051	태음,소양> 소음
85	자신에게는 소홀히 하고 남에게는 깎듯이 대한다(태음)	35.0%	0.147	태음,소양> 태양
94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태음)	49.5%	0.089	소음> 소양
100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편이다(소음)	55.3%	0.050	태음> 소음,태양
104	변비가 있으면 건디가 힘들다	20.6%	0.193	소양> 소음
110	몸이 안 좋을 때 맘을 내면 개운하다(태음)	26.5%	0.077	태음> 소음
111	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소음)	58.1%	0.067	소음> 소양
120	평소에 많이 적으나 병이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많이 난 적이 있다(소음)	31.8%	0.159	소음> 태음

a)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

**② 네 체질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뚜렷한 응답성향이 나타나지 않은 문항**

네 체질 모두 응답자중 50%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문항은 6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Table 4. Valueless contents of affirmative response

No	내 용	응답율	P값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소음)	62.1%	0.246
40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태양)	61.7%	0.140
41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심성이 바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태양)	63.9%	0.288
56	한 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간다(소음)	57.0%	0.340
68	업신여감을 당하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태양)	57.9%	0.698
118	간혹 눈 주위가 뻑뻑할 때가 있다(태음)	58.6%	0.922

a)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

**③ 네 체질 모두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뚜렷한 응답성향이 나타나지 않은 문항**

네 체질 모두 50% 이하로 응답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문항은 29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Table 5. Valueless contents of Negative response

No	내 용	응답율	P값
28	내면적이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24.5%	0.248
36	절도가 있고 엄격한 편이다	35.4%	0.242
42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학력을 본다	12.0%	0.880
46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소음)	26.0%	0.439
4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태음, 소음)	32.9%	0.967
49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소음, 소양)	27.3%	0.822
54	과장하기를 잘한다(소양)	16.6%	0.141
58	싫증을 잘 느끼며 체념을 쉽게 한다(소양)	36.3%	0.384
72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다(소음)	22.1%	0.382
81	모임이 있을 때 평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소음)	32.3%	0.243
82	일 할 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 할 수 있다	35.3%	0.778

No	내 용	응답율	P값
84	자신은 인정 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홀히 여기는 편이다 (소음, 소양)	22.4%	0.689
86	보답을 주로 받으려고 하지, 남에게 보답하는데는 인색한 편이다	11.0%	0.158
90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태양)	9.3%	0.985
91	남의 것을 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18.3%	0.840
92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태양)	10.5%	0.617
96	말로는 서로 특 터놓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특 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소음)	25.8%	0.554
99	풍족한 상태에서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29.0%	0.861
102	이유 없이 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태양)	8.8%	0.252
105	설사가 맞지 않으면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진다(소음)	25.2%	0.708
106	손발에 땀이 나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낀 적이 많다	9.0%	0.671
107	코밑에 땀이 나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낀 적이 많다	2.2%	0.154
108	몸이 안 좋으면 항상 소변부터 불쾌해진다(태양)	20.0%	0.359
109	몸이 안 좋으면 변비가 오는 경향이 있다	24.9%	0.637
113	온몸과 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태양)	37.4%	0.218
115	평소 건강할 때에도 자주 가슴이 두근거린다	28.6%	0.923
116	팔 다리에 힘이 없고 손발이 떨릴 때가 있다(소음)	36.5%	0.164
119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 아플 때가 있다	38.2%	0.356
121	겨울철에 찬 음식을 먹어도 땀이 많이 난다(태음)	4.3%	0.477

a)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

④ 네 체질이 고르게 응답하여 뚜렷한 응답성향이 나타나지 않은 문항

네 체질 각각의 응답율이 50% 사이에서 고르게 응답한 문항은 5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Table 6. Valueless contents of Equal response

No	내 용	응답율	P값
38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소음)	58.5%	0.355
43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영리하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 차린다	43.6%	0.732
97	웬만한 일을 성취하였어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태양)	48.4%	0.296
103	변을 보고 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을 때가 많다 (태음)	45.8%	0.514
114	음식을 먹은 후 가슴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소음)	52.3%	0.277

a)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

(2) 太陽人 問項 分類

太陽人이 회소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太陽人을 제외한 세 체질로 분류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었다. 이번 연구에는 13명의 太陽人이 포함된 설문지를 체질별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타체질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을 재분석하여 각 체질간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문항중 체질간의 연관성을 부등호로 표시하였다. 이중 태양인이 다른 체질과 구별되는 문항은 18문항이었다.

기존 QSCCII의 太陽尺度는 『東醫壽世保元』 및 『格致藁』에 근거하여 體形 및 容貌使氣, 性情 및 病證이 太陽人에 부합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번 문항분석에서 文獻과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문항들에서 太陽人의 反應頻度가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體形 및 體格을 묻는 문항에서 少陽尺度인 문항 1-②, 2-②, 5-③, 少陰尺度인 2-③, 5-②, 6-②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太陽人 체격이 보통이거나 마른편이며, 가슴도 빈약하고 구부정하다라는 것으로 기존의 太陽尺度 및 문헌에서 표현된 상체가 하체에 비해 발달되어 있으며 체격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심성적 요소를 묻는 문항에서는 문항12-②, 19, 48, 55, 61으로 대체로 少陽人에 해당되는 문항에 응답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기존 太陽尺度와 일치하는 문항은 34, 48, 61, 78, 83이었다. 대체로 太陽人과 少陽人의 외향적인 성격에 반응하는 頻度가 높았다. 그러나 기존의 少陰尺度 문항인 문항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문항 59. 별일이 아닌 데도 조바심치며 불안해 한다 에 응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病證에 있어서는 태양인의 병리를 표현한

문항인 102, 108, 113에 태양인의 다른 체질과 반응빈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東醫壽世保元』에서 太陽人의 病理 표현이 不足한 면이 있는데 이로 인해 적절한 病證問項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태양인의 반응이 다른 체질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의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와 같이 표기하였다.

〈Table 7〉

Table 7. Contents of selected Taeyang Scale(N = 18)

No.	Contents	Comparison
1	㉠ 보통이다(소양)	태양, 소양) 소음, 태음
2	㉠ 보통이다 ㉢ 마른편이다(소음)	태양) 태음
5	㉠ 팔길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소음) ㉢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소양)	태양) 태음
6	㉠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소음)	소음, 태양) 소양) 태음
12	㉠ 활동적이고 용감하다(소양)	태양, 소양, 태음) 소음
15	㉠ 무슨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태음)	태양, 소양, 태음) 소음
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소양)	소양, 태양, 태음) 소음
30	사람을 사결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태음, 소음)	태양, 소음, 태음) 소양
3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태양)	소양) 태음) 소음 / 태양) 소음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태양, 소양, 태음)	소양) 태음, 소음 / 태양) 소음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소양, 소음)	소음) 소양, 태음 / 태양) 태음
55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태양) 태음, 소음 / 소양) 소음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치며 불안해 한다(소양, 소음)	태양) 소양, 소음, 태음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태양, 소양, 태음)	소양, 태음) 소음 / 태양) 소음
78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태양)	태양, 소양) 소음, 태음
83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열성이다(태양)	태양, 소양, 태음) 소음

a)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

### (3) 少陽人 問項 分類

537명의 체질별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타체질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을 재분석하여 각 체질간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유의

성이 있는 문항중 체질간의 연관성을 부등호로 표시하였다. 이중 少陽人이 다른 體質과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던 문항은 40문항이었다.

身體的要素는 문항번호 1-㉠, 1-㉢, 2-㉠, 2-㉢, 3-㉠, 3-㉢, 5-㉠, 5-㉢, 6-㉠6-㉢, 9-㉠에서 다른 체질과 통계적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少陽人의 체격이 보통이거나 마른 편으로 太陰人보다는 체격이 작으며 少陰人보다는 큰 것으로 표현된다.

心性的要素는 문항번호12-㉠, 15-㉠, 15-㉠, 16, 17, 18, 19, 20, 25, 31, 34, 35, 39, 48, 55, 61, 62, 63, 69, 74, 75, 78, 83, 93, 98 문항으로 少陽人과 太陽人의 외향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 응답이 높았으며 다른 체질과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素證 및 病證을 묻는 질문에서 문항 8-㉠ 평소 손발이 따뜻한 편이다.는 물음에 少陰人에 비해 반응빈도가 높았다.

소양인의 반응이 다른 체질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의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와 같이 표기하였다. 〈Table 8〉

### (4) 太陰人 問項 分類

537명의 체질별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타체질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을 재분석하여 각 체질간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유의성이 있는 문항중 체질간의 연관성을 부등호로 표시하였다. 이중 태음인이 다른 체질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던 문항은 41문항이었다.

身體的要素는 문항번호 1-㉠, 2-㉠, 3-㉠, 5-㉠, 6-㉠, 6-㉢, 9-㉠에 반응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기존의 太陰尺度와 일치하며 太陰人의 體格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항이다.

心性的要素는 문항번호 12-㉠, 15-㉠, 15-㉠, 16, 17, 18, 19, 20, 25, 31, 34, 35, 39, 61, 62, 75, 83 문항등 기존의 태음척

도외에 태양척도 및 소양척도에 문항에 해당 하지만 외향적인 경향을 묻는 문항에 있어 少陰人보다 통계적으로 반응빈도가 높았다. 太陰人, 少陰人의 內向的인 성격을 나타내는 문항들인 문항번호 15-③, 23, 24, 30, 33, 50, 70, 73, 80, 87, 88, 95, 98 문항에 있어 일반적으로 太陽人과 少陽人보다는 통계적으로 반응빈도가 높았으나 少陰人보다는 반응빈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太陰人은 少陽人과 太陽人보다는 내향적인 경향이지만 少陰人보다는 외향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素證 및 病證을 묻는 문항인 8-②, 10-①, 112, 117에 反應頻도가 높았는데 이는 기존 太陰尺度 문항으로 太陰人의 素證 및 病證에 부합되는 문항이다.

태음인의 반응이 다른 체질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의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와 같이 표기하였다.

<Table 9>

Table 8. Contents of selected Soyang Scale(N = 40)

No.	Contents	Comparison
1	② 보통이다(소양) ③ 체격이 작은 편이다(소음)	태양, 소양) 소음, 태음 소음) 소양) 태음
2	② 보통이다 ③ 마른편이다(소음)	소양) 소음, 태음 / 태양) 태음 소음) 소양) 태음 / 태양) 태음
3	① 상체가 허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태양, 소양, 태음) ③ 상하체가 비슷하다(소음)	태음) 소양) 소음 소음, 소양) 태음
5	②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소음) ③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소양)	소음) 소양) 태음 / 태양) 태음 소양) 태음, 소음 / 태양) 소음
6	②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소음) ③ 넓고 튼튼한 편이다(근육형)	소음, 태양) 소양) 태음 소양, 태음) 소음
8	②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태양, 태음) ③ 걸음걸이가 빠르고 몸을 흔든다(소양)	태음, 소양) 소음 소양) 소음, 태음
10	① 평소예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태음)	태음, 소양) 소음
12	② 활동적이고 용감하다(소양)	태양, 소양, 태음) 소음
15	① 무슨 일이든지 물려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태음)	태양, 소양, 태음) 소음

No.	Contents	Comparison
	② 일을 벌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소양)	소양, 태음) 소음
16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하다(태음) 도 목돈 버는 일이 좋았다(소양, 태음)	소양, 태음) 소음
17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태양)	소양, 태음) 소음
18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소양)	소양) 태음) 소음 / 소양) 태양
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소양)	소양, 태양, 태음) 소음
20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소양)	소양, 태음) 소음
25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귀다(소양)	소양) 태음) 소음 / 소양) 태양
31	민첩하고 용감하다(소양)	소양) 태음) 소음
3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태양)	소양) 태음) 소음 / 태양) 소음
35	표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태음, 소양) 태양 / 태음) 소음
39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소양, 태음)	소양, 태음) 소음 / 소양) 태양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태양, 소양, 태음)	소양) 태음, 소음 / 태양) 소음
55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소양)	태양) 태음, 소음 / 소양) 소음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태양, 소양, 태음)	소양, 태음) 소음 / 태양) 소음
62	이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깊게 사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태양)	소양, 태음) 소음
63	밖으로 나돌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소양)	소양) 태음, 소음
69	평소에는 명랑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소양)	소양) 태음, 소음
70	마음이 상했다라고 웬잖은 척 한다	소음) 소양) 태양 / 태음) 태양
74	예의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소양, 태음)	소양) 태음, 소음
75	이는 척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소양)	소양) 태음) 소음
78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태양)	태양, 소양) 소음, 태음
83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열성이다(태양)	태양, 소양, 태음) 소음
87	사람을 설득 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이온다(소음)	태음, 소양) 소음
93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편이다(소양)	소양) 소음, 태음
98	남의 일에 열심이면서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소양, 태음) 소음

a)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

Table 9. Contents of selected Taeum Scale(N = 41)

No.	Contents	Comparison
1	① 체격이 큰 편이다(태양, 태음*)	태음> 소음, 소양, 태양
2	① 뚱뚱한 편이다(태음)	태음> 소양, 소음, 태양
3	①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태양, 소양, 태음)	태음> 소양> 소음
5	① 골격이 굵고 살이 전 편이다(태음)	태음> 소양, 소음, 태양
6	① 넓고 잘 발달되어 있다(비만형)(태음) ③ 넓고 튼튼한 편이다(근육형)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소양, 태음> 소음
8	②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태양, 태음)	태음, 소양> 소음
9	① 걸음이 느리고 무거운 편이다(태음)	태음> 소음, 소양
10	①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태음)	태음, 소양> 소음
12	② 활동적이고 용감하다(소양)	태양, 소양, 태음> 소음
15	① 무슨 일든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태음) ② 일을 빨리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소양) ③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소양, 태음> 소음 소음> 태음> 소양
16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소양, 태음)	소양, 태음> 소음
17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태양)	소양, 태음> 소음
18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소양)	소양> 태음> 소음
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소양)	소양, 태양, 태음> 소음
20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소양)	소양, 태음> 소음
2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태음, 소음)	소음, 태음> 소양
25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귀다 (소양)	소양> 태음> 소음
30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 하는 편이다. (태음, 소음)	태양, 소음, 태음> 소양
31	민첩하고 용감하다 (소양)	소양> 태음> 소음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3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태양)	소양> 태음> 소음
35	표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태음, 소양> 태양 / 태음> 소음
39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겨 참여한다 (소양, 태음)	소양, 태음> 소음
50	처음에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태음, 소음)	소음> 태음> 소양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태양, 소양, 태음)	소양, 태음> 소음
62	이성 사람은 많지만 막상 깊게 사귀는 사람이 없 어 속상할 때가 많다 (태양)	소양, 태음> 소음
70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	태음> 태양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태음, 소음)	소음, 태음> 소양, 태양
75	이성 척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소양)	소양> 태음> 소음
80	점잖은 척 할 때가 많다	소음, 태음> 소양, 태양
83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열심이다 (태양)	태양, 소양, 태음> 소음
87	사람을 설득 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소음)	태음, 소양 > 소음
88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태음)	소음> 태음> 소양
95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98	남의 일에 열심이면서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소양, 태음> 소음
11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현수를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117	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있다 (태음)	소음, 태음> 소양

a)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

(5) 少陰人 問項 分類

537명의 체질별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타체질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을 재분석하여 각 체질간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유의성이 있는 문항중 체질간의 연관성을 부등호로 표시하였다. 이중 少陰人이 다른 體質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던 문항은 32문항이었다.

身體的要素는 문항번호 기존의 少陰尺度인 1-③, 2-③, 3-③, 5-②, 6-②, 9-②에 반응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少陰人의 체격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항이었다.

心性的要素는 문항번호 12-④, 15-③, 23, 24, 30, 33, 50, 51, 52, 53, 60, 64, 65, 67, 70, 73, 76, 80, 88, 89, 95, 101등 기존의 少陰尺度에 반응빈도가 통계적으로 다른 체질과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少陰人의 性情을 잘 반영하는 문항이었다.

病的要素는 8-①, 10-②, 112로 少陰人의 素證 및 病證을 잘 반영하는 문항이었고 太陰尺度인 문항번호 117. 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있다. 에 少陽人에 비해 높은 반응빈도를 보였다.

少陰人의 반응이 다른 체질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의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와 같이 표기하였다. <Table 10>

Table 10. Contents of selected Soeum Scale(N = 32)

No.	Contents	Comparison
1	③체격이 작은 편이다 (소음*)	소음> 소양> 태음
2	③마른편이다 (소음)	소음> 소양> 태음
3	③상하체가 비슷하다 (소음)	소음, 소양> 태음
5	②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 (소음)	소음> 소양> 태음
6	②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 (소음)	소음, 태양> 소양> 태음



No.	Contents	Comparison
8	①평소 손, 발이 찬 편이다 (소양, 소음)	소음) 소양, 태음
9	②겉음결이 자연스럽고 압전하다 (소음)	소음) 소양, 태음
10	②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소음)	소음) 소양, 태음
12	④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태양
15	③음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소음) 태음) 소양 / 소음) 태양
2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태음, 소음)	소음, 태음) 소양
30	사람을 사귈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태음, 소음)	태양, 소음, 태음) 소양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 소음) 태양
50	처음에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태음, 소음)	소음) 태음) 소양 / 소음) 태양
51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소양, 소음)	소음) 소양, 태음
53	인내심이 많다 (태음, 소음)	소음) 소양
60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소음) 태음, 소양
64	새로운 일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65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67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소음) 태음, 소양, 태양
70	마음이 상했다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	소음) 소양) 태양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태음, 소음)	소음, 태음) 소양, 태양
76	있어도 없는 척하여 실속을 차리는 편이다 (태음, 소음)	소음) 소양
80	점잖은 척 할 때가 많다	소음, 태음) 소양, 태양
88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태음)	소음) 태음) 소양 / 소음) 태양
89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95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 소음) 태양
10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소음)	소음) 소양
11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소음)	소음, 태음) 소양
117	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있다 (태음)	소음, 태음) 소양

a) 김<sup>19)</sup>의 분류에 따른 척도

#### IV. 考 察

기존에 문항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박<sup>28)</sup>의 체질별 반응에 따른 문항 연구에서는 태양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김<sup>29)</sup>, 나<sup>30)</sup>,

장<sup>31)</sup>의 체질별 문항 선택은 반응빈도가 10% 이상 차이가 있는 문항을 선택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체질간별 통계적 다중비교를 실시하여 문항을 선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전체 537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던 문항은 57문항이었다.

#### 1.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問項에 대한 考察

기존 QSCCII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문항은 64문항이다. 이 중 身體的要素를 묻는 8문항중에서 1문항, 性質才幹을 묻는 41문항중 20문항 恒心을 묻는 15문항중 5문항, 心慾을 묻는 24문항중 16문항, 病症을 묻는 24문항중 19문항, 動機歪曲 9문항중 3문항이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대체로 體刑氣像을 표현하는 문항보다는 性情 및 病症을 표현하는 문항에 있어 불필요한 문항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삭제와 보완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문항 1번에서 15번 문항중에서는 體刑을 묘사한 4번 문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으며 체질별 피부상태를 묻는 11번 문항에 대해 체질별로 고르게 응답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格致叢 獨行編』의 원문을 표현한 心慾을 묻는 13번 문항에 있어 체질별로 고르게 응답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15번 문항부터 121번 문항까지 네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던 문항을 네 체질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체질간에 차이를 보인 문항, 네 체질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뚜렷한 응답성향이 나타나지 않은 문항, 네 체질 모두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뚜렷한 응답성향이 나타나지 않는 문항, 네 체질이 고르게 응답하여 뚜렷한 응답성향이 나타나지 않은 문항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 중 네 체질과의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각 체질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체질간의 차이를 보인 문항들은 19문항으로 체질 진단 결과를 도출할 때 구별이 힘든 경우 재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활용할 수 있는 문항으로 사료된다. 네 체질 모두 응답자중 50%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문항은 6문항이었으며 이중 문항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는 문항 26과 대비되는 문항으로 삭제보다는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네 체질 모두 50% 이하로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문항은 29문항이었으며 이중 문항 28 '내면적이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문항은 문항 29와 대비되는 문항으로 삭제보다는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네 체질 각각의 응답율이 50%사이에서 고르게 응답한 문항은 5문항이었다. 이중 네 체질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체질간에 차이를 보인 문항과 수정 보완할 문항 27, 문항 28을 제외하고는 삭제하여 설문지를 간략하게 하여 설문응답자의 집중력을 높이고 체질판별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體質別 辨別力이 적었던 문항은 응답율이 낮거나 體質別로 고르게 응답하는 경우이었다. 性質才幹, 恒心, 心慾을 표현한 문항중 부정적이며 반사회적 경향을 가지는 문항이거나 생소한 문항에 대해 응답율이 떨어졌으며 긍정적인 경향의 질문에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 없었다. 구체적인 病證에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반응율이 낮았으며 공통적인 病證問項에 대해서는 고르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재해석이나 중복된 구조로 된 문항들을 단순구조로 만들거나 보다 명확한 명사의 사용이나 분명한 상황이나 시간 설정을 통한 문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병증에 관한 항목에 있어서는 전문의사와 환자 사이의 개념이나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사와의 직접

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問項의 體質 分類를 통한 考察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太陽人을 포함하여 문항분석이 이루어졌다.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에 있어서 반응빈도가 높았던 문항들은 기존의 문항분석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太陽人의 경우 기존연구와 문헌에서 예상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537명중 13명으로 조사대상자의 2.4%가 太陽人으로 診斷되었으며 이중 男子 8명, 女子 5명이었다. 太陽人의 분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만명당 3-4인 많게는 10여인이라 0.1% 이내의 분포인데 이번 연구에서는 높은 수의 분포를 보였다. 문항분석 결과 기존 太陽尺度중 5문항과 外向性을 나타내는 少陽尺度 문항에 응답 반응이 높았다. 그러나 반응빈도가 높았던 문항 중 太陰尺度, 少陰尺度問項이 있었는데 이는 이번 조사에서 太陽人으로 분류된 13명은 『東醫壽世保元』의 太陽人의 분포 보다 많은 비율로 太陽人 診斷 鑑別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體質을 太陽人으로 診斷했을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척도의 반응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太陽人에 대해서는 원문에 충분이 다 발명되지 않아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太陽人에 맞는 적절한 척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太陽人 診斷과 충분한 자료의 축적을 통한 太陽人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東醫壽世保元』 원문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에 경험적으로 축적된 太陽人의 性情 및 病理를 표현하는 문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 提 言

1) 설문지 문항의 분석 결과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은 기존 연구와 큰 차이가 있지 않

았지만 太陽人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좀 더 많은 수의 太陽人을 포함한 연구 분석이 요구된다

2) 임상적 진단을 거쳐 체질이 결정된 조사대상자의 설문지 응답성향을 분석한 결과 설문지의 체질을 판별하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간략하면서도 정확한 설문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이번 연구를 통해 네 체질별 변별력이 높다고 인정된 문항에 대해 문항적격도 및 신뢰도를 측정하고 판별분석하여 새로운 판별식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結 論

QSCCII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문항의 妥當性を 조사하기 위해 慶熙大學校 강남경희한방병원 체질의학센터에 內院한患者 537례의 환자를 對象으로 統計的 分析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全體 537名 被檢者의 說問을 對象으로 네체질별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다른 體質과의 應答頻度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던 문항은 57문항이었다.

2.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던 문항 중 체질간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 체질별 체질판단에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太陽人 18문항, 少陽人 40문항, 太陰人 41문항, 少陰人 32문항이었다.

3.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던 문항은 64문항으로 이중 네 체질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체질간에 차이를 보인 19문항은 체질 진단이 확실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27번, 28번문항을 제외한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를 간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4. 태양인의 체질판단에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18문항이었으며 다른 체질보

다는 문항 수가 적었다. 더 많은 수의 문항 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의 축적을 통한 지속적인 太陽人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東醫壽世保元』 원문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에 경험적으로 축적된 太陽人의 性情 및 病理를 표현하는 문항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VI. 參考文獻

1.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여강출판사, 44, 1992, 서울.
2. 이문호 외 1인 : 사상체질유형과 체격 및 신체형태지수와의 비교연구, 사상 의학회지, 2(1) : 71-86, 1990.
3. 허만희 외 2인 :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4(1) : 107-148, 1992
4. 고병희 외 1인.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의학회지 1996 ; 8(1) : 101-186
5. 김달래 :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6(1) : 89-94, 1994.
6. 김종원 외 2인 : 사상체질과 혈중Prostaglandin E2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9(2) : 245-62 , 1998.
7. 조황성 외 1인 :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생화학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9(2) : 147-62, 1997.
8. 조동욱 외 2인 : 유전자지문법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연구, 사상의학회지, 8(2) : 151-64, 1996.
9. 조동욱 외 2인 : Amp-FLP를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 연구, 사상의학회지, 9(2) : 163-74, 1997.
10. 최승훈 외 2인 : 사상체질유형과 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유전자 Type(polymorpin)과의 상관관계. 사상의학회지, 10(2) : 283-290, 1998.

11. 김정렬 외 3인 : 계측기를 이용한 O-Ring Test법의 검증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7(1) : 69-102, 1995.
12. 김종원 외 2인 : EAV의 측정치와 사상체질유형 및 중풍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7(2) : 59-88, 1995
13. 지규용 외 2인 : 적외선체열촬영진단기를 이용한 체질분류와 병리진단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4(2), 1995.
14. 한주석 외 1인 : EAV의 측정치와 병증유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7(1) : 43-68, 1995.
15. 고병희 외 1인 : 사상체질변증에 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6(1), 1985.
16. 고병희 외 1인 : 사상체질변증방법론 연구(제2보), 대한한의학회지, 8 (1), 1987.
17. 김선호 외 2인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5(1) : 61-80, 1993.
18. 이정찬 외 3인 :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5(1) : 81-98, 1993.
19. 김선호 외 2인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8(1) : 186-246, 1996.
20. 이정찬 외 2인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I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8(1) : 247-94, 1996.
21. 이의주 외 2인 :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7(2) : 89-100, 1995.
22. 박성식 외 2인 :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1(1) : 103-18, 1999.
23. 김영우 외 1인 :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기존 설문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11(2) : 151-184, 1999.
24. 김종열 외 2인 :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81-214, 1998.
25. 송일병 :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 연구에 대한 현황 및 전망,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12, 1998.
26. 박은경 외 1인 : 설문지 항목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2(1) : 157-72, 2000.
27. 김태균 외 1인 : 새로운 사상체질 설문지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1(1) : 173-85, 2000.
28. 박은경 외 1인 : QSCCII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 차이 비교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2(2) : 134- 67, 2000.
29. 김상복 외 4인 :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의한 少陰人 진단의 타당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3(1), 2001.
30. 나대운 :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의한 少陽人 진단의 타당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31. 장현록 :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의한 太陰人 진단의 타당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